

시론

황해가 썩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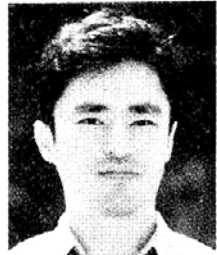
어릴 적 재미로 비를 맞아가며 길을 걷던 일은 이제는 두려운 일이 되었다. 엘니뇨현상에 의한 세계적인 기후 이상은 우리의 지구촌이 걸려버린 환경오염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장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미생물이 대량 늘어났다 썩게 되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독성과 산소부족으로 물고기나 조개류가 죽어갈 수 있는 것이다.

황해 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서해라는 수산자원의 보고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방관적인 태도를 벗어나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무리한 간척사업을 자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차단하며 황해의 자정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인 연구와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황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오염발생 원인의 감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중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이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아직도 해양오염문제를 국가적인 선결과제로 삼기에는 경제개발의 논리가 너무나 강하다. 그러나 해양오염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중국이 오염을 규제, 방지할 만한 기술이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환경보호추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시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종태

(동국대학교·산업시스템공학부)

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중국이 오염을 규제, 방지할 만한 기술이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환경보호추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시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

황해 자정능력 갖추도록 정부차원 대책 세워야

나아가 유엔환경기구(UNEP)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연차회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타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위기해결 차원에서 시급히 수립하고 실행하여야만 하며, 우리 국민은 정부가 그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축제로 승화하는데 큰 역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점점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캐릭터, 현수막 등을 비롯한 각종 봉축상품들이 봉축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같은 상품들이 행사를 풍성하게 장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봉축위원회에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몇몇 봉축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뚜렷

“통일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봉축용품은 단일기관에서 일원화시켜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화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봉축용품도 일종의 문화 상품이다. 이렇게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기획물인 만큼 확실적인 물건보다는 개발하고 시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과 종류가 많이 나와 불자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경쟁 체제가 마련돼야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각 사찰과 포교당들은 그 지

대외적 불교이미지 개선에 도움

봉축 캐릭터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축하할 수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 통합이란 상징성이 크므로 종단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각 종단별로는 고려나 수행법상 차이점이 많으므로 나름의 특색있는 캐릭터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각 종단 산하의 신행단체나 사찰들은 종단의 통일된 봉축 캐릭터를 일사분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종도들의 단합된 봉축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종단 산하의 단체에서 독자적인 캐릭터

열린마당

봉축이미지 통일

조계종은 96년부터 봉축행사와 관련된 종단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해를 거듭하며 종단은 캐릭터 등 봉축 이미지 통일 작업에 힘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일부 사찰과 단체들은 아직까지 종단이 권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적인 문양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봉축이미지 통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종단이 주도하는 이미지의 통일과 각 지역과 사찰들이 나름대로 도안한 봉축 이미지 도안들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봉축의 의미를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축이미지의 통일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회장 및 취재 기자에게 응송토록 제작한 캐릭터



한 좋은 인상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알릴 수 있다고 하니 씩씩한 마음이다. 모방은 또다른 모방을 낳고 조잡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획이 있으면 이를 모아 통일된 봉축캐릭터를 제작해 부처님오신날이 지구촌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한층 높아지리라 본다. 봉축용품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막는다면 오히려 지방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봉축용품의 다양화는 우리나라의 불교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단순한 봉축 기념품이 아닌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한국 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다.



각 단체의 사업목적과 특징을 살린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생명나눔실천회의 마스크트인 '나눔이'는 토끼가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를 들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각 단체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봉축 캐릭터와는 차별성을 가진 캐릭터를 개발하면 된다.

종단차원 봉축캐릭터 통일 불자 결속 강화

이미지 통일작업 의의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봉축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통일된 문양의 캐릭터와 각종 휘장, 현수막 등을 통해 종단의 일체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계 최대 축제인 봉축행사에 쓰이는 각종 문양들을 통일 시킴으로써 봉축의 의미를 한층 고양시킨다는 것이 조계종의 의도다. 이와 함께 종단의 결속력과 전통 계승이란 측면도 봉축 이미지 통일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그간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봉축 캐릭터를 도안하고 기본 캐릭터를 응용한 봉축 상품들도 개발 보급했다. 봉축위가 보급하고 있는 봉축 이미지 통일관련 상품은 연꽃과 배라밀의 의미를 부합시켜 도안한 심볼마크, '부처님 오신날' 등 각종 봉축 문구에 활용하는 로고, 탄생 불을 형상화 시킨 캐릭터, 천진童子 문양, 각종 현수막 제작에 따른 기본 색상과 문양, 띠, 등포, 어깨띠, 각종 휘장등 1백여 종을 넘는다. 또 이들 문양을 활용한 모자, 유니폼, 티셔츠, 슬리퍼, 시계, 손수건, 깃, 버튼 등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봉축위가 보급하는 봉축 이미지 상품들은 임의적으로 변형시킬 수 없으며 상업 상품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봉축위의 허의를 거쳐야 한다.

Advertisement for 'Chuncheon Okseon Gakok's Shinbi!'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featuring a list of symptoms and a testimonial.

Advertisement for 'Nanchi-byeong Treatment' (난치병 치료) for chronic diseases, mentioning 'Honghwa-mal' (홍화마을) and 'Daegu Yeolhanbang' (대구여래한방).

Advertisement for 'Honghwa-mal' (홍화마을) featuring 'Honghwa-ssi' (홍화씨) and 'Minsook Honghwa-ssi' (민속 홍화씨).

Advertisement for 'Shinbihan Uchu Energy' (신비한 우주 에너지) featuring 'Pyramid Hiran' (피라미트 히란아) and 'Minok Chulpansa' (문덕출판사).